

섬 불편없게...여수 거문도 여객선 지원

해수부 여객항로 안정화사업 선정 선박 추가 투입...비용 50% 지원
여수시도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여수~거문 항로 개선안 마련

여수 거문항로의 여객선 운항 불편이 크게 개선된다. 해양수산부가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데다 여수시도 여수~거문 생활항로 개선방안을 마련, 장기적으로 여객선 공영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여수~거문과 여수~연도 2개 항로를 올해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은 민간선사가 운항하는 항로 중 승객이 많지 않아 수익이 나지 않는 항로의 운항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해 지역주민의 교통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책이다.

여수시와 삼산면 거문도를 잇는 여수~거문 항로는 선박이 하루에 두 번만 왕복하고, 운항 간격이 1시간밖에 되지 않아 주민들이 병원·관광서 업무를 보는 데 큰 불편을 느꼈다.

해수부는 앞으로 이 항로에 선박을 추가로 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가 운항 비용의 50%씩을 지원할 방침이다. 여수시와 남면 연도를 잇는 항로는 연도 주민이 육지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학생들의 통학로다.

기존에 인천해상의 금오고속페리호 1척이 운항하고 있었지만 계속 승객이 줄어 적자가 누적되면



여수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거문항로 안정화 방안 검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수부는 앞으로 이 항로에서 발생하는 운항결손액의 최대 70%를 지원해 여객선이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수시도 최근 '거문항로 여객선 운항 안정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항로 개선방안을 내놨다. 단기적으로 주민 준공영제를 위한 국비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여객선 공영제를 시행한다는 목표다.

용역을 수행한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원거리 도서지역을 오가는 거문항로 여객선 안정화를 위해 세부과업별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크게 여수~거문 생활항로 개선방안 마련, 대중교통법 시행에 따른 역할, 신규 및 관광항로 개설 등 3개 과제로 나눠 정밀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거문항로 여객선 운항 안정화를 위한 거문

항로의 재정수지 분석 및 대안을 마련하고, 정기여객선 선정 만료대비 적격 선박 도입 등 대응방안과 경영상태가 좋은 우량선사 유치(모객)방안을 마련했다.

또 원거리 도서지역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대중교통법의 정착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삼산면 관광객 유입을 위한 거문도·백도 등 관광자원 활성화와 낭도(백야), 돌산(신기)~금오도·백도-거문 관광항로 개설 관련 적정성 등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 및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거문항로 여객선 운항 안정화에 대한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제안을 당부한다"며 "운역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정책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나눔 세상 온정의 손길

박형수 보배치과원장, 곡성미래교육재단에 장학금 1000만원

곡성 보배치과 박형수 원장이 최근 "아이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사용해 달라"며 곡성 미래교육재단에 1000만원을 기탁했다. <사진>

박 원장은 "고향 후배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아이들이 꿈을 실현하는데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곡성미래교육재단은 박 원장의 뜻에 따라 기부금을 최근 결성된 '꿈돌자 오케스트라'의 악기 구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곡성미래교육재단은 꿈돌자놀이터 조성, 정규



교과과정에서는 습득하지 못하는 다양한 체험과 진로탐색의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순천만새마을금고, 사랑의 줌도리운동 모금 쌀 기부

순천만새마을금고는 최근 '2020년MG희망나눔 사랑의 줌도리 운동'으로 모은 220만 원 상당의 쌀 10kg들이 74포를 순천시 저전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사진>

'줌도리'는 옛날 어머니들이 밥을 지을 때마다 미리 한술을 덜어내어 모으던 항아리를 뜻하는 말로, 넉넉지 않은 가정생활에서도 근검절약해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나누던 미풍양속이다. 새마을금고는 이같은 전통을 이어 받아 사회공헌활동으로 '줌도리운동'을 펴고 있다.

조형래 순천만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여서서 모금 운동이 예년보다는 힘들었다"며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나눔활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사회 공헌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전동행정복지센터는 기탁받은 쌀을 홀로사는 노인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어려운 이웃 74세대에 전달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의회 "광양 코앞 순천 쓰레기매립장 철회하라"

순천 구상·건천 후보지 철회 촉구
광양 시민단체 집회 등 강하게 반발

순천시가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로 광양에 인접한 지역을 내세우자 광양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순천시 서면 구상·건천지역 쓰레기매립장 후보지 선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양시의회는 성명에서 "순천시가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해 선정한 후보지 4곳 중 광양시 불강면 석사리와 인접한 서면 구상과 건천마을 2곳을 포함해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면 농업용수와 지하수 오염은 물론 광양시민이 받을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광양시의회는 이어 "광양시민은 순천시가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로 서면 구상·건천마을을 포함한 것은 양 도시 간 갈등을 유발하고 상생협력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순천시는 서면 구상·건천마



광양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일 순천시청 앞에서 '구상·건천지역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광양시민대책위 제공>

을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구상·건천지역 쓰레기매립장 조성 반대 광양시민대책위원회'가 순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광양시 턱밑에 순천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순천시는 왕조동 쓰레기매립장에서 하루 190t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나 사용 연한이 2년밖

에 남지 않아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쓰레기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최근 주암면 자원순환센터 부지와 월동면, 서면 2곳 등 모두 4곳을 선정했으나 해당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순천시는 올해 입지가 선정되면 국비 등 1200억원을 투입해 2023년 착공해 2026년부터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산단로타리클럽·키다리아저씨, 중학생에 학용품 전달

여수산단로타리클럽과 여수키다리아저씨 모임은 최근 여수시 드림스타트아동 중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책가방과 학용품을 후원했다. <사진>

이번 후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희망찬 학교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16명에게 전달됐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중학교 입학 학생들에게 책가방을 후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명의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학용품을 지원했다.

김중휘 여수산단로타리클럽 회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중학교 신입생들이 새 가방을 메고 등교해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